

롯데마트, 먹거리 최대 50% 할인 행사

롯데마트가 17일까지 주요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엘포인트 회원은 호주산 곡물비육 소고기 전 품목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알뜰한 건오징어'(3미·210g), '동해안산 건오징어'(3미·210g)도 1만800원에 선보인다. 또 수입 맥주 '다다익선 행사'를 통해 수입 캔맥주 4개를 9400원에 판매한다.



'2017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2만5000여명 성황

엄마도 아이도 "내년에 또 올래요"

게임 즐기며 프로선수 사인회 등 만끽 단골 참가자 늘고 외국인 관광객 늘길 다시 오고 싶은 5월 축제로 자리매김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이 5월을 대표하는 가족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게임 지난 5일과 6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열린 '2017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엔 2만5000명의 가족들이 다녀갔다. 각 부스에 직접 참가한 인원도 1만8000명에 달했다. 특히 5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엔 이전 참가 가족들이 또 다시 현장을 찾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매년 5월 참가하고 싶은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쌍둥이 형제 김태호·태룡(30)씨도 단골 참가자다. 둘은 "매년 5월마다 생각나서, 시간이 되면 꼭 참가하고 있다"며 "올해엔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해 더 기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부모들도 많았다. 평소 게임을 잘 즐기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해 현장을 찾았다는 조성욱(38)씨는 "사람도 많고 다들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다"며 "아이들이 좋아해 다음에도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수단 출신으로 한국에 오래 거주한 모지타바(16)와 오스만(13) 형제는 "우연히 찾게 됐는데 정말 즐겁다"며 "평소에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현장에서 즐기



최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이 2만5000명의 가족들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전 참가 가족들이 다시 현장을 찾는 등 매년 참가하고 싶은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부모와 어린이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넥스 크레이지 파크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니 더욱 재밌다. 내년에 또 올래요"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 열기도 뜨거웠다. 올해 페스티벌엔 넥스의 '카트라이더',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LoL)',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 카카오게임의 '프렌즈사천성'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꾸러졌다. 김희란(46)·전해림(22) 모녀는 '엄마야빠와 함께 프렌즈사천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희란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우승까지 해서 기쁘다"며 "게임

은 가족을 공통분모로 묶어주는 것 같다. 적당히 즐기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가문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들에 즐거움을 더했다. 5일 개막식은 치어리더 박기량이 진행을 맡았고, 걸그룹 에이프릴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6일엔 KT 롤스터의 고동빈과 송경호, 진에어그린윙스의 노희중과 전익수가 'LoL 최강의 듀오' 결승 진출팀과 특별전을 치르고, 팬 사인회도 가졌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게임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이자 여가 문화가 됐고 디지털 시대를 이끌 블루오션이기도 하다"며 "이 자리가 부모와 자녀 간 세대 차이를 조금이나마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회도 게임이 규제, 통제는 단어 대신 소통, 함께, 휴식, 문화와 같은 단어로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카레라이스 쌀면' 요리네~ 요리

쌀면에 카레 풍미 극대화한 제품 저온진공 건조 영양 손실 최소화



농심이 카레와 쌀면을 조합한 독특한 요리 개념의 카레라이스 쌀면(사진)을 출시했다. 요리 수준의 카레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집한 카레 맛을 내기 위해 제품 1봉지당 카레 분말스프(36.4g)를 기존 비비타입류 제품(18g) 대비 2배 이상 넉넉하게 넣었다. 큼직한 감자와 고기고명, 식감을 잘 살린 아채건더기를 넣어 맛을 더했다.

굵게 썬 감자는 진공프라이닝 공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유지했고 닭가슴살, 소고기로 만든 고기 고명과 당근, 완두콩, 청경채 등의 야채 건더기를 통해 풍성한 맛을 살렸다.

카레의 풍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오드레이션 공법을 사용했다. 저온진공에서 건조해 재료의 영양 손실은 최소화하고 맛과 향은 그대로 살리는 첨단 기술이다.

카레요리에 곁들여 먹는 밥은 쌀 80%를 사용한 쫄깃한 면발로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소망 실현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KB국민카드 캠페인 25일까지 접수 10명에게 희망직업 체험기회 제공

KB국민카드가 전 국민 대상 '징검다리 프로젝트 2017' 캠페인을 연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을 후원하는 소망 실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찾아 떠나는 꿈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고객들은 평소 꿈꿔왔던 직업이나 경험해 보고 싶었던 분야의 일을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25일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응모 양식 사연을 적어 이메일(kbevent.kkg@kfbg.com)로 보내거나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 홈페이지로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우수 사연은 '2시 탈출 컬투쇼'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명에게 희망하는 직업 또는 분야의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KB국민카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평소 꿈꾸던 직업을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도전 의지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연주자들이 만들어 준 문화 지키고 싶어"

비즈 & 피플

MOC 프로덕션 이샘 대표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특하면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MOC 프로덕션이 10주년을 맞았다. 부침이 심한 클래식 시장에서 장장 10년을 버티며 프로덕션을 이끌어 온 이샘(43) 대표 역시 '독특하면서도 확고한' 사람이다. 시장 밖의 사람들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8년간 일하다 한 순간에 클래식 공연기획자로 변신한 그의 특이한 '커리어 시프트'에 관심을 보이지만, 시장 안의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데 머물러 있다. 국내 공연시장에서도 척박한 편에 드는 클래식 장르, 그 속에서도 마이너 중의 마이너에 가까운 실내악 중심의 프로덕션이라는 점과 10년간 '든 사람은 있어도 난 사람은 없다'라는 경이로운(?) 기록 때문이다.

대중에게 어렵다는 선입견이 강한 클래식 장르 중에서도 '마이너'로 꼽히는 실내악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MOC 프로덕션을 10년간 이끌어 온 이샘 대표. 사진제공 | ©Taeuk Kang

항공사 승무원에서 공연기획자로 클래식계 스타군단 이끌며 10년째

구성원 모두 가족 같은 운명공동체 프로덕션 10주년 갈라 콘서트 '생큐'

현재 MOC 프로덕션에는 국내 클래식 실내악단을 대표하는 노부스 콰르텟과 트리오 제이드를 비롯해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수열, 피아니스트 선우예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호른리스트 김홍박 등 클래식계의 스타 군단이 즐비하다. 총 22명으로, 단 한 명도 MOC 프로덕션을 떠난 사람이 없다. 이샘 대표는 비결에 대해 "연주자들의 인품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이라고 했다. 10년 동안 늘 잘 된 연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회사를 가족 같은 운명공동체로 여겨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업계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다. "MOC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은 사람이 참 좋다"라는 것이다. 이샘 대표가 미소로 수긍했다.

"정확히 보셨다. 콘서트 아티스트로서 성공하기 위해 뛰어난 연주력과 재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인품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함께 일하기 쉽지 않다."

이샘 대표는 "클래식 음악은 연주자의 인격이 반영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MOC 프로덕션과 인연을 맺은 아티스트들에 대해 "그들의 고매한 인격이 연주에 투영되어 무대에서 나를 향해 손짓했다"고 생각한다.

●10주년 감사 콘서트... "물지 말고 즐기세요"

이샘 대표는 MOC 프로덕션의 10주년을 기념해 잔치를 열기로 했다. 13일 서울 서초동 페리지홀에서 '생큐(Thank You)'라는 타이틀을 걸고 갈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 연주자들은 물

론 특별 게스트들도 무대에 선다. 연주와 영상, 토크쇼를 통해 지난 10년을 반추하는 자리다. 예상되는 러닝타임은 무려 세 시간 이상. "관객 여러분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며 이샘 대표가 웃었다.

클래식 공연답지 않게 콘서트의 연주 프로그램은 철저히 비밀이다. 노부스 콰르텟이 윤이상의 현악사중주 1번을 연주한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10주년 갈라 콘서트라고 해서 듣기 편한 소품들 위주의 공연이 되지는 않을 거란다.

10주년을 맞아 이샘 대표는 책도 출간한다. '너의 뒤에서 건네는 말(아트북스)'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을 달았다. "10년간 공연기획자이자 아티스트 매니저로서 살아온 삶에 관한 에세이"라고 했다.

이샘 대표에게 "MOC 프로덕션의 20주년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물었다. 의외로 그의 대답은 담백했다. 연주자들이 만들어 준 지금 이대로, MOC 프로덕션만의 문화를 지켜 가는 것. 오히려 "회

사가 커져서 지금 갖고 있는 특유의 친밀하고 가족적인 가치가 흐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이샘 대표에게도 단단한 꿈 하나가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현악사중주 페스티벌(파르티트 위크)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12월에 첫 내한공연을 하는 벨레아 콰르텟의 공연을 기획한 것도 목표를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샘 대표는 "국내 현악사중주와 실내악을 위해 MOC 프로덕션이 기여할 부분이 아직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사의 생일파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항공사 승무원에서 국내 젊은 클래식 스타군단을 이끄는 프로덕션의 대표로, 그가 갈라탄 비행기는 과연 어디를 향해, 얼마나 더 날아가게 될까. 기내의 표 시트에 불이 반짝 들어왔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음악을 귀를 기울일 때다.

양형모 기자 rani@donga.com



별자리·야생화·영화·물놀이... 하이원 리조트 유소년 맞춤 투어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는 만 13세 이하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투어상품을 내놓았다.

주중 2개, 주말 3개 등 총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투어 상품은 13세 이하 유소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 및 단체 또는 15명 이상의 소모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하이원 과학관'에서 별자리 동영상 관람 및 우주 관련 설명 등을 듣는 과학 교육을 비롯해 관광객들과 답습 및 스키 슬로프에 핀 야생화 군락지 관람, CGV와 연계한 개봉영화 시청, 하이원 북카페에서 독서 즐기기 등이다. '더 그릴'에서의 식사와 강원랜드 수영장 물놀이 시설 이용(2시간)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투어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며 신청은 사전 전화예약(033-590-6924)으로만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하이원 리조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미니스톱 '환경사랑 꿈나무 그림잔치' 수상작 전시



편의점 미니스톱이 1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평화관에서 '제25회 환경사랑 꿈나무 그림잔치' 전시회(사진)를 연다.

"나는 우리마을 환경 지킴이"라는 주제로 열린 환경사랑 꿈나무 그림잔치 수상작들로 채워지며, 최우수상 4점·세종문화회관 사장상 5점 등 총 209점이 전시된다. 권중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장은 "어린이들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호활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환경보호의 중요함을 알리는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